총선 앞둔 정치권 "설 민심 잡아라"

신당 "일당독재 막아야" 견제론 적극 설파

한나라 "국정 안정 위해선 과반 이상 필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 행보에 나섰다.

특히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설 연휴를 맞이하는 만큼 각 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계획하고 설 차례상에 자당의 정책과 비전이 화제에 오를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강한 야당 필요성을 역설하며 '견제론'을 적극 설파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살리기 등을 내세우며 '국정 안정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두 당 모두 현재의 판세가 거대 여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치된 분석을 하면서도 17대 총선전 초반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다가 막판에 '견제론'과 '인물론'으로 급피치를 올리면서 121석이란 만만치 않은 의석을 확보했던 것을 상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설 연휴를 한나라당은 '현 구도 고착', 신당은 '양강 구도 안착'의 계기로 각각 삼겠다는 각오다.

◇대통합민주신당=설연휴 기간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모습을 통해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계획이다.

우선 손 대표는 지난 1일 육군 전방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4일에는 영등포 시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장바구니 물가 등을 점검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5일에는 공교육 활성화를 테마로 서울시내 중학교를 찾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연휴 기간에는 재래시장과 복지시설·산업현장·소방방재청 등 민생현장을 구석구석 둘러보기 위해 세부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중앙행정과 지방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장악할 경우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 알릴 계획"이라며 "또 서민과 중산층의 고충을 듣고 견제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강재섭 대표를 필두로 전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 대표는 6일 지역구인 대구로 내려가 양로원, 고아원 등을 방문하고 재래시장 등을 돌며 설 경기를 체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역에서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기울이는 한편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내 과반의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 진보성향 정부의 적폐를 일소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섬기는 자세로 경청하고 민생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 공천배심원제 도입

10일까지 온라인 공모

대통합민주신당은 4·9 총선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5일 국회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뜻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수행을 위해 시민심사위원단을 구성키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과 최고위원단 간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시민심사위원단을 공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정당 선거사상 이 같은 '배심원' 성격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 대변인이 전했다.

시민심사위원단은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모니터링, 공천심사위에 의견을 전달하면 공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천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공천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시민심사위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신당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모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보유한 자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1차 서류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연합뉴스

"잘해 봅시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와 지난 대선에서 신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연회장 조찬회동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손을 잡은 채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손 맞잡은 孫-鄭 "이젠 총선 승리"

갈등설 일축, 당 쇄신 의기투합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와 지난 대선에서 신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설연휴 직전인 5일 손을 맞잡았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일 일각에서 제기됐던 창당 가능성을 부인한 데 이어 이날 손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두 사람의 갈등설을 일축하고 당 쇄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손 대표와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반성과 참회, 쇄신과 변화만이 신당의 살 길이며 이를 위해 당의 화합과 단합이 중요하다"면서 "야당다운 야당, 좋은 야당의 길을 가면 국민이 건강한 야당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두 사람이 대선 이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손 대표측 우상호 대변인, 이기우 비서실장과 정 전 장관측 박영선 김현미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조찬을 겸해 이뤄졌다. 손 대표와 정 전 장관은 식사 후 50분 가까이 독대,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심재민 前 광주부시장 '公約 홍보물' 발송

4·9 총선 현장

○…광산구 첨단 지역 출마를 선언한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역구내 각 가정에 공약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설 명절 민심 잡기 활동을 본격화.

심 예비후보는 특히 5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보내, 설 연휴를 전후로 재래시장 및 마트 등을 찾아 현장의 민심을 듣고 지역에서 형성된 여론을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제안.

임현모 총장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를"

○…광주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임현모 광주교육대 총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의 정신을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의 전당'을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

임 예비후보는 "광주의 정신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정신유산으로 발전·계승되어야 한다"며 "한국민주주의전당은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적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지병문 의원, 재래시장 돌며 민심 다지기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이 당원 100여 명과 함께 남구 관내 무등·봉선·월산·남부시장을 방문,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설을 맞아 바닥 민심 다지기에 주력.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설·추석마다 재래시장 물품구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 의원은 이번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남구 관내 법정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으로 전달할 계획.

이윤정, '에너지 메카' 남구 발전전략 발표

○…이윤정 광주 남구 예비후보가 정책DAY선포 후 제 2탄으로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한 남구 발전전략을 발표.

한전KDN감사이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한국전력이 들어서는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해 한전중앙연수원 건립, 전력아트센터 유치, 한전그룹 스포츠단 유치 등 남구를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공약을 제시.

이평수 "순천 발전 밑거름 되겠다"

○…이평수 전 정동영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이 5일 "언론과 정계에서 쌓아온 중앙의 인맥과 실전경험을 기반 삼아 순천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순천 출마를 선언.

이 예비후보는 "말이 아닌 목숨을 걸고 뛰겠다"며 "순천을 남도의 맛과 멋,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

장홍호, 양동시장 상인과 만남의 시간

○…서구 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장홍호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광주시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장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가 얼마나 좋은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현장 정치"라며 "양동시장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전자 상거래망 구축 등의 방안이 추진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지지를 호소.

임내현 前 고검장, 첨단디자인센터 방문

○…북구을 예비후보로 대통합민주신당 공천 경쟁에 나서는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은 지난 4일 첨단디자인센터 내 산학협동 연구원을 방문,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학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그는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고,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제공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서 "지역 내 기업들도 대학, 고교와의 산학 협력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김승남 "통신시장 대폭 개혁 필요"

○…광산에 출사표를 던진 김승남 예비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후퇴방침에 반발, 통신시장을 일대 개혁할 것을 촉구.

휴대전화요금, 기름값 등 '5대 거품빼기' 광산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새 정부는 통신업체의 입장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통신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허신행 前 장관 '순천 출마' 공식 선언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농업 발전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쏟겠다"면서 순천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

허 전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수산부 장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등을 지낸 경험과 능력을 살려 국회에 입성, 농촌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송두영, 북구 주민들과 '번개 간담회'

○…송두영 광주 북갑 예비후보가 5일 북구 장등·망월·운정·청풍동 등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 주민들과 '번개 간담회'를 갖고 민심 챙기기에 전력.

송 예비후보는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현안을 수렴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민원해결을 약속.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